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

1.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하여 ATP 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부유균 채취기 등 식품위생 관련 물품을 강매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범죄(노쇼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기유형)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을 사칭하며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음식점 영업자 등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개정 등을 빌미로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 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불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경찰청과 협업하여 피싱 사기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 각 기관, 협회에서는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 교육장·민원실 등에 포스터,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SNS, 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메시지 예시>

- 위조 공문서 수령 시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식약처에서는 특정 기기 구매를 영업자에게 강요하지 않음
- 공문서에는 개인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4. 아울러, 의심사례 발생 시 해당 기관·부서에 확인하여 주시고, 사칭 범죄로 확인된 경우 '피싱안심SOS'에 신고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X경찰청 합동 홍보 포스터.

2. 어서끓자 캠페인 신종스캠편(피해예방 홍보 동영상).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서울특별시(식품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위생정책과장), 인천광역시(위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건강위생과장), 대전광역시(식의약안전과장), 울산광역시(식의약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보건식품안전과장),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강위생과), 식품안전정보원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식용유지추가공업협회, 식용유지추가공업협회 시험분석연구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대한제과협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주무관 **최종일** 식품위생사무관 **이상모** 대결 2026. 5. 19. 식품관리총괄과 전결
장

협조자

시행 식품관리총괄과-3382 (2026.05.1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60 팩스번호 043-719-2050 / jochoi@korea.kr / 비공개(5)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